

KIPA NEWS



2011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 개최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 마련

O 리회는 회원사 상호 네트워크 강화 및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T 「2011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지 곤지암리조트(경기도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리회 김광림 회장과 최종협 부회장을 비롯, 대기업 · 중소기업 · 특허
법률사무소 · 개인발명가 등 각 기업대표 및 특허전담자 120여 명이 참
석하였다.

기업 대표급(실무자 포함)이 양일 간 회원워크숍을 갖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반적인 우리회 사업설명을 비롯, 명사초청 강연으
로 전옥표 위닝경영연구소 대표의 '이기는 습관 이기는 경영'과 김주섭
LG전자 상무이사의 '한국을 둘러싼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신 동향'의
재권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저녁 만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며, 지식재산 현안사항
에 관해 회원 서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였다.

우리회는 향후에도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KIPA 사회봉사단, 사랑실천 나누기

무료급식 · 김장 담그기 등 사랑과
나눔의 현장 몸소 체험



O 리회 최종협 KIPA 사회봉사단장
T (부회장)은 지난 11월 4일, 대한
여성변리사회가 주최한 '제2회 결식아
동돕기 자선파티'에 후원금을 전달하였
다. 이 행사는 수익금 전액은 어린이재
단을 통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
해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10일에는 소외된 이웃과의 사
랑 나누기 일환으로 다일복지재단을 방
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회 사회봉사단 30여 명은 노숙
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대접했고, 식사 후에는 식당 환경정리
등 마무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장
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17일에도 경기도 양평에 위치
한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장애우 및 무
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
을 담그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
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
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2011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 성황리에 폐막

연수중학교 소형석, 주천초등학교 이윤정·길예슬·차승희(팀)
대상 수상

자식재산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 e-러닝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11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점), 금상(특허청장상 4점), 은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6점),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후원기관장상 16점),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80점) 및 우수지도자에 대한 특별상(특허청장상) 등 총 108점의 수상작, 158명의 수상자(공동수상 포함)에 대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발명교육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I°(Imagination Into Invention)'(4권)는 인천 연수중학교 소형석 학생의 발명관련 동아리, 대회 및 기자단 활동을 깔끔히 정리한 발명 노트이며, 발명문화창작 부문 대상작 '나는야 발명왕'은 누구나 발명왕이 될 수 있다는 노래를 UCC 동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전라북도 진안의 주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윤정·길예슬·차승희 학생의 공동 작품이다.

이날 공모전 수상작들은 지식재산 e-러닝포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의 「대한민국 발명교육콘텐츠 공모전」코너에 온라인 전시되고 지식재산과 발명교육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특허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 개최



리회는 기술거래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여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컨퍼런스룸(317호)에서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에서는 「특허활용전략 국제컨퍼런스」,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상담회」 등이 열렸다.

「특허활용전략 국제컨퍼런스」는 미국 특허법 개정,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특허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기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비즈니스 동향” 등 총 6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에이엠엔티의 “생체모방 종이 작동기” 사례를 포함하여, 그린파이오니아의 “파래를 이용한 수질 독성 평가방법”, 네오너지의 “일체형 스크롤 팽창기 압축기술” 등 총 7개 기관의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가 발표되어 기술거래 희망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종합상담회」에서는 변리사, 회계사, 기술거래사, 기술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 특허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상담을 지원하였다.

KIPA NEWS



전국 초·중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글짓기 대상에 안선주(경기 설봉초6) 이수민(서울 언북중2)
만화 대상에 이재인(대전 반석초6) 최경호(경기 수일중1) 학생 각각 수상

우리회가 주최하고 POSCO가 협찬한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글짓기 대상은 안선주(경기 설봉초6)·이수민(서울 언북중2) 학생이, 만화 대상은 이재인(대전 반석초6)·최경호(경기 수일중1)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글짓기부문은 안선주 학생의 '생각을 모아서 에코글로리'와 이수민 학생의 '발명과 함께하는 에너지저로, 행복 무한대의 미래'가, 만화부문에서는 이재인 학생의 '거북선 축구장'과 최경호 학생의 '식물의 잎차례(도려나기)를 적용한 미래의 건물'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초등부 글짓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친환경적인 건축형태와 함께 나팔꽃 모양의 태양열 저장 공간에 대한 상상을 글로 표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체상은 수상 및 응모건수가 많았던 서울남사초등학교와 연수중학교가 선정됐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행사는 청소년들이 발명과 관련된 기술적·설득적·창의적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미래 발명 사회를 꿈꾸고, 그 안에서 미래기술 등을 선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사이다.

전체 수상자는 글짓기 부문과 만화 부문에서 초·중등부 각각 대상 1명, 금상 5명, 은상 7명, 동상 40명 등 총 212명이 수상하였다.

청소년 아이디어로 40건 특허출원

2011년도 YIP, 최종결과발표회 개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발명가프로그램(YIP)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올해 4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개회를 올렸다.

우리회는 지난 11월 25일, COEX에서 「2011년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Young Inventors Program)의 최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 및 최종협 한국발명 진흥회 부회장·박건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육·상담 과정을 통해 최종 개선된 우수 아이디어들의 전시 및 발표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최우수, 우수팀 및 우수지도관찰보고서 제출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그 결과 올해 선발된 최우수 팀은 'Double 1(경기과학고 방준호·박건하·김영우)', 'just대덕(대덕고 서규석·이찬들·이성재)', '아이티아이디어(서울아이티고 박성재·유영석·이창현)' 등 후원기업 당 1개 팀씩 총 8개 팀이 그 영광을 차지했으며, 학생들의 최종 아이디어는 후원기관과 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총 40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됐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청소년들의 특별 튜닝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서 "기업의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YIP를 통해 창의성과 독창성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 직무발명 국제

일시 | 2011. 11. 24. (목) 14:00~17:00 주최 | G 특허청 주관 | 한국과학기술회관 후원 | KIPA 특허청 IFA

**한국·일본·대만 직무발명제도 및 기업 운영 우수사례 공유
국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식도 진행**

허청과 우리회는 지난 11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직무발명 국제포럼과 함께, “2011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주)탑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및 LED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내외에 총 1,400여 건의 특허출원과 25% 이상의 매출증가 등의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인스펙션(주)은 PDP 패널 전자검사장비(AEI)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2006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이직률이 거의 없는 알짜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려상에는 파형강판 전문기업인 평산에스아이(주), 위성방송 수신기 전문업체인 (주)포티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주)테스가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특허청 특허기술사업화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가점을 통해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한편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국내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일본에서는 나라기계 社와 대만에서는 킹 디자인 社가 각각 자사의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주)탑엔지니어링과 삼화콘덴서공업(주)에서 각각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태국 수재민 돋기 성금 전달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난 12월 1일,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 참석한 태국 공주에게 태국 수재민 돋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태국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사망자 약 500여 명·이재민 12만 명이 발생하고, 약 19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KIPA 사회봉사단장인 최 부회장은 “약소한 성금이지만, 이번 태국 흥수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방문한 태국공주는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KIPA 특별상 및 IFA 특별상을 수상하고, 2011 특허유통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태국의 특허활용 지원정책과 글로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였다.